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 회관 802호, 110-701
전화 : 763-9633 FAX : 763-9634

정대협 : 제 93-41호
수 신 : 외무부 장관
FAX : 720-2686

발 신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이호재.김희원

국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협의회는 어제 날짜(1993.6.28)로 무토 일본외상 방한에 대한 성명을 벌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렇게 긴급히 장관님께 서신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 T.V 뉴스보도를 통해 일본 무토 외상방문 목적중에 하나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조기매듭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 협의회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이 없이 조기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규탄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및 배상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반성의 기색없이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기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졸속한 타협은 우리나라가 1965년에 식민지 지배의 면죄부를 일본에게 준 것 처럼 또다시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본 협의회로서도, 국민들로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본 협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제에 의한 우리민족 박멸책과 인류역사상 전례없는 가장 참혹한 인권침해인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다급한 외교적 문제가 많겠지만 장관님께서도 강제종군위안부 문제가 안고 있는 우리민족과 역사상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금일 일본외상과의 회담에서 어떠한 졸속적인 타협에도 응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3 년 6 월 29 일

공동대표 윤 정 옥. 이 호 재. 김 희 원

